

病棟編成과 看護問題

~ 간호중심으로 해야 ~

<이화여대 간호학과 교수> 이 영 복

病棟編成과 看護問題란 그 範圍가 꽤 넓은 問題이겠으나 나는 여기서 모든 病院의 病棟編成은 어디까지나 看護中心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強調하고 싶다.

여기서 強調하고 싶은 이 結論만은 나의 생각이지만 이 結論을 뒷받침하는 說明들은 다 專門家들, 特히 病院管理의 大家들의 理論들을 部分的으로 引用한 것 들이다.

病院의 目的을 어느 만큼이나 達成하느냐 하는 問題는 結局 患者에게 어느 만큼이나 質的인 看護를 해 주느냐 하는 問題가 左右하게 된다.

따라서 質的인 看護, 즉 좋은 看護를 하려면 有能하고 경험있는 看護員이 必要하게 된다.

病院에서의 看護員의 位置는 마치 戰爭터에서의 一線將兵과 같고 企業體에 있어서는 資本에 해당하는 重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一線將兵도 武器와 장비가 갖추어져야 그 勇猛을 떨칠 수 있고 資本도 그 運營條件이 마련되어야만

원활히 돌아가게 마련이다.

우리 看護員도 잘 編成된 病棟 卽 Nursing Unit에 따라 人力과 時間 그리고 病院의 物資를 節約하면서 다른 部署와의 team work를 잘 할 수 있으며 質的인 좋은 看護를 베풀 수 있는 것이다.

結局 綜合病院의 目的 達成을 爲해선 좋은 看護를 해야겠고 좋은 看護를 하기 위해선 病棟編成이 잘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 × ×

病室 또는 病棟을 英語로는 ward 라고도 하고 요새는 Nursing Unit란 말을 많이 쓰는데 Ward란 말은 본래 지킨다, 保護한다, 감시한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지만 Nursing Unit란 말은 한 team의 看護員들이 한 group의 患者들에게 좋은 看護를 가장 적당하게 할 수 있는 單位를 말할 것이다.

勿論 Nursing Unit의 目的 또는 對象은 患者이고 거기서 活動하는 主人公은 看護員 들이다.

綜合病院에서의 看護員의 位置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 位置란 말은 洪코 높고 낮은 階層의인 位置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患者를 中心으로 한 病院內 各部 署와의 實際的인 關聯性을 中心한 位置를 말하는 것이다.

例를 들면 약제사가 지은 약도 看護員의 手으로, 營養師가 만든 음식도 看護員의 手으로, 用途課에서 사 드린 物品도 看護員의 手을 通해 患者에게 實施되고 傳達된다.

뿐만 아니라 社會 大衆을 中心으로 生覺해 볼 때에도 看護員은 社會 大衆과 病院과의 中間에서 病院의 前面 혹은 대변자의 役割을 하기도 한다. 勿論 公式的인 대변은 病院長이 하나 非公式的인 대변은 看護員이 每日 수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런 重要한 位置에서 있는 看護員의 責任은 무엇인가?

크게 나누어

① 患者에게 適當한 質的 看護를 하는 것이다. 質的인 看護란 安全한 環境 속에서 患者의 精神과 肉體를 最大로 平安케 돌보면서 治療와 회복의 期間을 最少로 단축시키도록 努力하며 心身의 복구와 健康教育까지 하는 그러한 看護이다.

② 合理的으로 職業的 調整을 해 나가는 것이다.

病院이란 가장 人間關係가 複雜한 곳으로 人和와 協調가 重要하며 自

身の 健康은 勿論 職權등을 유지하면서 長期的인 奉仕를 세우는 일도 調整의 하나이다.

③ 病院의 運營을 最大限으로 도우는 일이다. 看護員이 病院運營을 크게 左右한다는 말은 實地로 人力과 時間과 物資 即 消費面에서의 병원운영이 많이 간호원의 手에 달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病院運營을 最大限으로 도와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綜合病院의 全體職員數의 半數 內外가 看護員이라는 점, 患者와 가장 많은 時間을 보내는 사람이 看護員이라는 점, 病棟을 잠시도 비우지 않고 24시간 내내 지켜야 되는 것도 看護員이라는 점을 놓고 생각할 때 간호원 한사람과 사무원이나 다른 기능직 한사람과의 立場에서는 病원을 도우는 것이 같겠지만 수가 많은 간호원은 經營學上으로 또는 數學上으로 力을 하여 優位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에 Canada Toronto에 있는 한 소아병원은 일찌기 看護中心의 病棟編成의 必要性을 느껴 直接 實務者인 首看護員이나 看護課長의 意見을 들어 건축했기 때문에 여러 病院에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다고 한다.

病院管理가 發達된 先進國에서 看護中心의 病棟編成을 하는 理論도 以上과 같은 여러가지 理由에서인

것이다. 의 活動과 便利를 위주로 編成하고
 看護員 自身の 便宜를 爲해서라기 特히 看護課長의 意見을 위주로 해
 보다 病院 目的 達成을 위해 看護員 야 하리라 생각한다.
 <참고>

1. 종합병원의 환자수 대 직원수

환자 100명에 대한 직원수는 인턴과 간호학생을 제외하고 180내지 250명
 (평균 220명)

2. 종합병원의 환자수 대 간호원수

환자 100명에 대한 간호원수 73명 내지 111명 (의대 진료소는 제외하고
 간호보조원을 합해서 평균 92명)

3. 종합병원의 전체 직원중 간호원수

전체직원 220명중 92명이 간호원, 특실(독방)이 많을수록 간호원은 더 필
 요함.

입원실 (Ward) 설계시 고려대상의 Group 순위

- 첫 째 : 환 자——거의 24시간 그 방안에 있고 입원비를 지불함,
- 둘 째 : 간호원——시간적으로 환자 다음으로 그 방에 많이 있고 하는 일이
 많고 복잡하다
- 셋 째 : 의 사——입원실에 있는 시간은 매우 짧으나 중요하다
- 넷 째 : 병동관
 리자 및 청소인——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정돈과 청결
- 다섯째 : 보호자 방문객——환자의 기분과 보호자의 편리
- 여섯째 : 기타

병원을 신설할 때 직원채용은 언제하는 것이 적합한가?

재무관——병원설립 기금이 준비된 직후	임상접사책임자——개원 3개월전
구매관——개원 12개월 전	영양조리책임자—— " 2 "
간호과장——" 12 "	의료기록자——" 2 "
인사과장——" 8 "	입회원사무관——" 1 "
의무책임자——" 6 "	의료사회사업가——" 1 "
건물관리책임자——" 6 "	약제사——" 1 "

간호원실 (Unit의 Center)의 구비조건

구분 : 1. 수간호원사무실 겸 (conference Room)	비교 : 1. 가장 먼 환자방과의 최단 거리를 고려
2. 간호기록하는 곳	2. 모든 사람의 편리를 위하여 병동 중앙에
3. 의사의 진료기록 코너	3. 문은 없이 하부만 닫고 동 행자, 기타 병동 내 전체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4. 투약준비하는 코너	4. 간호원화장실 겸 탈의실을 부속실 혹은 바로 연방에 둘 곳.
5. Scrub 하는 코너	
6. 매일 쓰는 물품장과 준 비대	

병동 (Nursing Unit) 구성의 필수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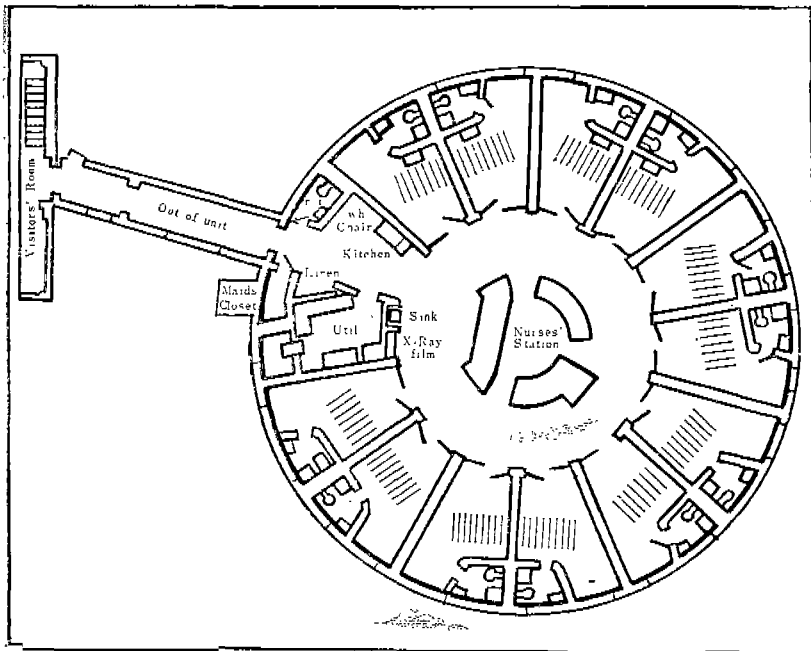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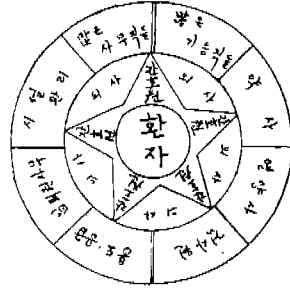
1. 환자병실 (Bed 30내외)	8. 창고 (Store Room)
2. 간호원실 (Nurses Station)	9. 청소인들 방 (Janitor's Room)
3. 변기실 (Utility Room)	11. 출입구는 비상구의 정식 출입구 는 한 곳에만
4. 배선실 (Pantry)	비교 : 의사의 기록실은 따로 들수 도 있고 간호원실과 함께 들 수도 있다.
5. 치료실 (Treatment Room)	
6. 의류실 (Linen Room)	
7. 독욕실 (병실 환자실을 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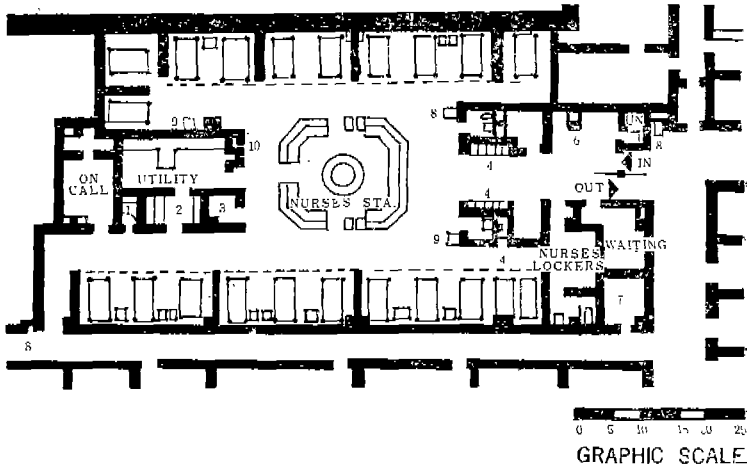
옆의 그림은 병원에서의 간호원의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다.

그림과 같이 간호원은 모든 부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아래의 그림은 간호원의 보행거리를 최대한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병동편성이지만 병실이 좀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다.

종합병원에서의 간호원의 위치





- | | |
|----------------------|---------------------------|
| 1 JANITOR | 6 TRUCK ALCOVE |
| 2 STORAGE | 7 MEDITATION |
| 3 MEDICATION STATION | 8 DRINKING FOUNTAIN |
| 4 PATIENT LOCKERS | 9 LAVATORY |
| 5 STRETCHER ALCOVE | 10 PNEUMATIC TUBE STATION |

Figure 6.3 An intensive care unit of 20 beds.

위의 그림은 Intensive care ward의 그림으로 nurses station이 따로 있지 않고 병실 안에 있어 한눈에 모든 환자를 지켜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남지부 · Miss Shepping 묘 성묘 ◇

지난 3월 15일 전남지부에서는 광주에 있는 Miss Shepping Elisabeth. J. Shepping의 묘를 찾아 그의 업적을 추모했다.

이번 성묘는 그의 조카인 Dr. W.J. Hennesy의 (전자 공업시찰단의 일원) 내한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오랫동안 숨겨졌던 Miss Shepping의 업적을 되새겨 주었

다,

Miss Shepping은 1910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간호원으로 고아들을 보살피는 한편 1923년에는 “조선간호부회”를 창설하여 초대회장직을 맡고 그해 Canada에서 열린 ICN 총회에 이금전, 이 효경씨와 함께 참석하여 ICN 준회원 자격을 얻는데 성공한 분이다,